

# 마이크론, 일본 엘피다 인수 확정적

## SK하이닉스 인수 포기로 경쟁자 없어 ... 인수가격 2000억엔 이상 제시

미국의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가 법정관리 중인 일본 D램 반도체 생산기업 엘피다(Elpida) 인수 대상기업으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5월6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엘피다의 재산관리인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게 매 의향을 전달했다.

빠르면 주초에 마이크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식 선정하고, 8월21일까지 도쿄지방법관소에 갱생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5월4일 열린 엘피다 인수 2차 입찰에는 마이크론 외에도 미국 TPG Capital과 중국 호니캐피털이 합작한 미·중 투자펀드연합도 참여했다.

엘피다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인수가격으로 2000억엔 이상을 제시했고 설비투자 지원액을 포함하면 약 3000억엔에 이르며 기술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램 세계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이고 엘피다가 3위,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4위를 달리고 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엘피다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24.7%로 올라가 SK하이닉스(23.0%)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된다.

일본 언론들은 엘피다가 파산하기 이전에 점유율 세계 5위인 타이완기업과 제휴 교섭을 진행한 점을 들어 미국-일본-타이완 연합이 한국기업들과 수위를 다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K하이닉스와 일본 도시바(Toshiba)는 2차 입찰에 불참했다.

엘피다는 일본 유일의 D램 반도체 생산기업으로 엔화 강세에 시달린 끝에 올 2011년 2월 파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07>